

# 2023년 8월 중국 무역 동향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3. 9. 19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## ◎ 요약

### ○ (수출) 8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$\Delta 8.8\%$ 감소

-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의 1~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수출증감률은 시장에측치( $\Delta 9.2\%$ )를 상회하였으나,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, 8월 무역수지는 약 683.6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약 120억 달러 감소

### ○ (수입) 8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$\Delta 7.3\%$ 감소

-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1~8월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수입증감률은 시장에측치( $\Delta 9.0\%$ )를 상회했으나,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

## 1 수출입 동향

- 8월 수출액은  $\Delta 8.8\%$  감소한 2,848억 7천만 달러(약 378조 원), 수입액은  $\Delta 7.3\%$  감소한 2,165억 1천만 달러(약 288조 원), 무역수지는 683억 6천만 달러(약 100조 원) 흑자를 기록
  - 8월 수출은 전월에 이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였고, 1~8월 누계 기준 무역수지는 5,534억 달러(약 734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0.3% 증가

### 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2	'23.상반기	'23.7월	'23.8월	'23.1~8월(누계)
수 출	35,693 (7.6)	16,632 ( $\Delta 3.2$ )	2,817.6 ( $\Delta 14.5$ )	<b>2,848.7</b> <b>(<math>\Delta 8.8</math>)</b>	<b>22,233.2</b> <b>(<math>\Delta 5.6</math>)</b>
수 입	27,120 (1.2)	12,542 ( $\Delta 6.7$ )	2,011.6 ( $\Delta 12.4$ )	<b>2,165.1</b> <b>(<math>\Delta 7.3</math>)</b>	<b>16,699.2</b> <b>(<math>\Delta 7.6</math>)</b>
수 지	8,573	4,090	806.0	<b>683.6</b>	<b>5,534</b>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8월 수출입총액은 5,013억 8천만 달러(약 665조 원)로  $\Delta 8.2\%$  감소했으며,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 $\Delta 6.5\%$ ,  $\Delta 5.6\%$ ,  $\Delta 7.6\%$  감소세를 보임
  - (수출)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의 1~8월 누계 수출액이 감소
  - 월별 수출증감률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무역 경기 안정화 지연
  - 자동차(새시포함), 자동차 부품의 1~8월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91.2%, 9.1% 증가하며 10대 품목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
  - (수입)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1~8월 누계 수입액이 감소
  - 월별 수입증감률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으며 다운스트림 소비재의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수입 약세 양상 지속
  - 일부 원자재, 제조 장비 등의 수입수량이 증가했으며, 주요 품목 중 수입수량이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품목 개수는 7월 5개에서 8월 12개로 증가
- 하반기 해외 수요 위축 지속, 내수 소비심리 약세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중국 수출입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있음
  - 전통적 무역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및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요 회복이 더뎠던 향후 몇 달간 수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
  - 중국 무역경기 침체는 주요 교역국 및 호주, 브라질, 캐나다 등 원자재 수출국에 악영향을 가할 수 있음
  -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
  - 중국 자동차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수출 강세에 힘입어 중고차 수출도 확대되고 있으며, 상무부 대외무역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수량이 5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

## 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초부터 글로벌 제조업 구매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하는 등 글로벌 경기 위축양상이 지속되며, 해외 수요 부진은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음</li> <li>- 1~8월 중국 전체 수출입액 중 3대 교역국인 ASEAN, EU, 미국의 수출입액 비중은 각각 15.2%, 13.6%, 11.2% 차지</li> <li>- 1~8월 對ASEAN 무역수지는 위안화 기준 10.3% 증가하였으나, 對EU 무역수지는 △13.4% 감소, 對미국 무역 수지 또한 △17.4% 감소</li> <li>- 향후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, 대외무역 안정 정책 강화로 중국 수출입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</li> </ul>
	 자오상 은행 (招商银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벌크 원자재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, 장비 및 중간재, 일부 다운스트림(리튬, 신발, 모자, 여행용가방, 가구, 오디오, 가전제품, 장난감 등)소비재 수출은 개선</li> <li>- 8월 일부 원자재, 제조 장비 수입실적이 개선되었으나 다운스트림 소비재 수요는 여전히 부진. 특히 화장품 및 세면용품의 전년 동월대비 수입증감률은 △27%로 확대</li> </ul>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수출액 증감률은 △8.8%로 지난 7월 증감률 △14.5% 대비 5.7%p 상승</li> <li>-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 확대가 수출증감률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</li> <li>- 8월 수입액 증감률은 △7.3%로 지난 7월 증감률 △12.4% 대비 5.1%p 상승</li> <li>- 수입수량이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품목 개수는 7월 5개에서 8월 12개로 증가</li> <li>- 글로벌 주요 산업 공급망 구조조정은 중국 수출점유율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으나, 무역대상국 다변화 추세는 중국 수출점유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</li> <li>- 향후에도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, 연간 수출 증감률은 △2% 내외로 전망</li> </ul>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중국 수출입 증감률을 시장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해외 수요 위축 및 내수 소비 약화 두 가지 압력을 받고 있으며, 무역 경기는 여전히 침체</li> <li>- 8월 수출액 증감률(△8.8%)은 시장예상치(△9.2%)를 상회, 수입액 증감률(△7.3%)도 시장예상치(△9.0%)를 상회하였으나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</li> </ul>
	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수입액 증감률이 전월대비 개선된 데에는 국제 유가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</li> <li>- 8월 무역수지는 686.6억 달러 흑자로 전월(806억 달러)대비 감소하였으며, 수출액 보다 수입액 증가폭이 더 큼</li> <li>- 전통적 성수기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요 회복이 더뎠을 경우 향후 몇 달간 수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</li> </ul>
	 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 수출입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월대비 개선되었고, 경기성장 안정화의 초기 신호로 평가할 수 있음</li> <li>-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및 건설활동 재개로 수입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</li> <li>-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이 올해 GDP 목표인 5%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비관하며,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고 전망</li> </ul>
	 THE WALL STREET JOURNAL. WSJ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중 갈등 강화로 많은 미국 기업의 공급망을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비중이 늘었으며,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급격히 감소</li> <li>- 중국의 무역경기 둔화로 호주, 브라질, 캐나다 등 원자재 수출국에 타격이 가해져 글로벌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</li> <li>- 중국은 무역 실적 둔화 이외에도 소비자 물가 하락, 제조업 경기 위축, 민간기업 투자 침체,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의 복합적인 경기 침체 문제에 직면</li> <li>- 중국정부가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으나, 일부 경제학자는 소비자 심리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</li> </ul>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3. 9. 13)

## 3

## 1~8월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10대 수출대상국(지역) 가운데 아프리카(수출증감률 10.2%)를 제외한 주요 지역·국가로의 1~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
  -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(△17.4%), ASEAN(△3.6%), EU(△10.5%), 중남미(△4.1%) 지역·국가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
  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△7.8%), 일본(△8.6%), 홍콩(△8.9%)으로의 수출액과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△7.3%) 수출액도 감소
  - 수입의 경우, 중남미(수입증감률 1.8%), 호주(8.5%), 브라질(3.6%), 러시아(13.3%) 국가·지역으로부터의 1~8월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ASEAN(△6.3%), EU(△2.5%), 대만(△20.9%), 미국(△4.9%)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
  - 중국의 對한국 1~8월 누계 수입은 △24.2% 감소하여 10대 교역국 중 감소폭이 가장 가파름

## &lt; 8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&gt;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
1	미국	450	△17.4	*ASEAN	324	△6.3
2	*ASEAN	429	△3.6	*EU	246	△2.5
3	*EU	413	△10.5	*중남미	226	1.8
4	*중남미	229	△4.1	대만	182	△20.9
5	홍콩	215	△8.9	한국	133	△24.2
6	*아프리카	141	10.2	일본	128	△16.7
7	베트남	123	△7.3	호주	124	8.5
8	일본	120	△8.6	브라질	122	3.6
9	한국	118	△7.8	미국	120	△4.9
10	인도	100	△1.5	러시아	115	13.3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\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상위 수출 품목 1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4.2%), 2위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1%), 3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3.0%)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△8.9%, △24.1%, △11.2% 감소

- 수출 6위 품목인 자동차(비중 2.1%)는 1~8월 누계 기준으로 수량 69.0%, 금액 91.2% 모두 대폭 증가
- 수입 1위 품목인 원유(비중 10.3%)는 1~8월 누계 기준으로 수량이 14.7% 증가했으나 금액은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△10.7% 감소
- 2위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0.0%)는 수량 △15.1%, 금액 △20.4% 모두 감소. 3위 철광석 및 정광(비중 3.9%)은 수량 7.4% 증가, 금액 △3.2% 감소

**< 8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**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8월 누계증감률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의류 및 부자재	-	-	162	△8.9	4.2
2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60	△24.1	4.1
3	방직실 및 직물	-	-	117	△11.2	3.0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41억 개	△6.2	113	△16.0	2.9
5	플라스틱제품	-	-	84	△5.1	2.2
6	자동차(새시 포함)	44만 대	69.0	82	91.2	2.1
7	가전제품	35,587만 대	4.9	81	△0.5	2.1
8	자동차부품	-	-	76	9.1	2.0
9	휴대폰	6,457만 대	△10.9	72	△13.6	1.9
10	강재	828만 톤	28.4	67	△11.1	1.7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*< 8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**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8월 누계증감률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원유	5,280만 톤	14.7	306	△10.7	10.3
2	반도체 및 집적회로	435억 개	△15.1	298	△20.4	10.0
3	철광석 및 정광	10,642만 톤	7.4	115	△3.2	3.9
4	식량(곡류)	1,274만 톤	6.8	64	4.2	2.2
5	동광석 및 정광	270만 톤	9.0	59	5.6	2.0
6	대두	936만 톤	17.9	52	8.6	1.8
7	천연가스	1,086만 톤	9.4	52	△0.9	1.7
8	자동차(새시 포함)	7만 대	△17.7	43	△20.2	1.5
9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43	△24.0	1.4
10	의약재 및 약품	35,984톤	32.2	41	7.1	1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## 4 주요 경제지표

- 8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49.7로 전월 수치 49.3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(50)을 하회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 $\Delta 3.0\%$  하락,  $0.1\%$  상승
  - 8월 PMI는 지난달에 이어 5개월 연속 기준선(50)을 하회하였으나 하위 지표인 생산지수, 신규주문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하는 등 완만한 경기개선 양상을 보임
  - 8월 PPI( $\Delta 3.0\%$ )는 지난달에 이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며, 화학제품 제조업,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등의 산업재 가격 하락 영향이 반영됨
  - 8월 CPI( $0.1\%$ )는 소폭 상승하여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며, 여행업 및 의약업 소비 가격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임

### 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20	2021	2022	'23.상반기	7월	8월	
경제성장률(%)	2.2	8.4	3.0	5.5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$\Delta 3.9$	12.5	$\Delta 0.2$	8.2	2.5	-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2.9	4.9	5.1	3.8	3.4	-	
산업생산 증감률(%)	2.8	9.6	3.6	3.8	3.7	-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51.9	50.3	47.0	49.0	49.3	49.7	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2.5	0.9	2.0	0.7	$\Delta 0.3$	0.1	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$\Delta 1.8$	8.1	4.1	$\Delta 3.1$	$\Delta 4.4$	$\Delta 3.0$	
실업률(기말, %)	5.2	5.1	5.6	5.3	5.3	-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444 (4.5)	1,735 (20.2)	1,891 (8.0)	-	-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1,277	31,930	32,043	31,601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7208	6.9252	7.1619	-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26 ( $\Delta 2.7$ )	1,629 (22.9)	1,558 ( $\Delta 4.4$ )	-	99 ( $\Delta 25.1$ )	105 ( $\Delta 19.9$ )
	수 입	1,089 (1.5)	1,386 (27.3)	1,546 (11.5)	-	112 ( $\Delta 19.2$ )	117 ( $\Delta 13.4$ )
	수 지	237	243	12.1	-	$\Delta 12.7$	$\Delta 11.9$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: 8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